



## 변치 않는 승리의 원칙 (2) Unchanging Principles of victory (2)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예레미야 애가 Lamentations 3:19-33)

1.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달려  
가야 합니다.  
Run closer to the arms of God in times of suffering.
2. 하나님을 코칭 하려는 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Change your attitude and stop coaching God.
3. 소망 가운데 기다림의 모든 순간을 귀하게 사용  
하세요.  
In hope make every moment of waiting count.

## 오이코스나눔지

odpcoikos

1.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솔직하게 쏟아놓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본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When times of suffering come, we must overcome our disappointment with God. When he was disappointed with God, Jeremiah drew closer to him and poured out his heart. Have you ever prayed like that? What is needed to persevere in prayer and not give up?

2.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코칭하려는 태도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받아들였을 때 고난을 이기는 터닝 포인트가 마련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기를 요구하기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결정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A turning point came when Jeremiah stopped trying to coach God and humbly submitted to God's sovereignty. Why is it difficult to yield ourselves to God's will instead of demanding God to do what we want?

3. 예레미야는 고난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애쓰기 보다 하나님이 벗겨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세월을 인내할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성숙해집니다.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Instead of trying to free himself, Jeremiah quietly waiting for God to take off the yoke of suffering. When we endure the period of waiting, we mature spiritually, becoming a vessel suitable for God's use. What promises of God should we remember and hold on to so that we would choose hope and not despair in the process of waiting?